

【서예의 추억 ~ 「생애 현역 응원센터」의 간판을 쓰면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시는 오늘, 어르신들이 봉사 활동 등의 지역 활동을 통해 보람있는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상담 창구인 「평생 현역 응원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센터의 간판을 제가 썼습니다만 간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7,8 회 썼습니다만, 변변치 않은 실력에 늘 부끄럽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몇 년간 서예를 배웠으며, 고등학교 때도 선택 과목도 서예. 서예와의 인연은 나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고등학교 시절 서예 수업은 친구와 둘이서 과제를 무시하고 스모 「순위표」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발견돼 복도에 서서 벌을 받던 것이 가장 큰 추억. 그리고 제 고등학교 당시 서예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생은 적고, 이변이 없는 한 4나 5를 받는데 저는 전 과목 중 유일하게 3을 받았습니다. 간판이 잘 안 써지는 것도 그때의 충격이 남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간판을 쓴 「평생 현역 응원 센터」는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의 활약 장소는 물론, 건강 수명으로 이어질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오카야마시의 평생 현역 사회의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센터의 주소는 오카야마시 기타구 다이쿠 2쵸메 4-25 (히마와리 복지 회관 내) 전화번호는 086-222-8619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순위표」를 만들다 복도에서 벌을 받았던 또 다른 친구는 오카야마의 농업계의 중진으로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